

奇經八脈의 脈診法인 氣口九道脈에 關한 研究

황정일*·윤종화**

* ** : 동국대학교 침구학교실

大韓醫藥氣功學會

I. 緒 論

古代에 經脈을 研究한 醫家들은 經脈의 調節을 위한 溢畜의 概念으로 奇經八脈의 設定하여 《內經》에는 任脈, 督脈, 衝脈, 帶脈, 陰蹻脈, 陽蹻脈의 奇經八脈의 病症과 路線이 記述되어 있고 《難經》에서 “奇經八脈”의 名稱, 作用, 循行 및 病候등이 體系的으로 記載되어 있다¹⁾²⁾.

經脈의 脈氣가 充盈하면 奇經으로 流入하고 十二正經이 虧虛하면 資助하여 正經을 溝渠로 奇經을 湖澤에 比喻하였다³⁾⁴⁾. 그리고 奇經八脈은 陰陽表裏配合과는 關係없이 別途로 奇行하며 陰陽의 昇降을 總括하여 管掌한다. 그

리고 奇經八脈에 上下四方의 六合의 空間·機能的의 意味를 附與하였다⁵⁾⁶⁾.

奇經八脈은 十二經脈을 總持하고 病機의 探索에 어류를 잡는 그물과 같은 役割을 擔當하는 重要한 意義가 있으며⁷⁾, 奇經八脈의 病은 獨立的으로 發病하지 않고 十二正經과 十五絡脉의 病이 流入되어 發顯되고, 傳經이나 流走에 依한 傳變이 없고 忽然히 發病하고 忽然히 潛伏한다⁸⁾⁹⁾.

한편, 滑¹⁰⁾은 “古代의 脈診의 方法은 多樣하다.” 하였고, 徐¹¹⁾는 “《素

- 1) 王琦 外 :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p. 258.
- 2) 葉霖 :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46-54.
- 3) 王羅珍 :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3.
- 4) 任應秋 : 黃帝內經類析,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p. 258.

- 5) 滑白仁 : 十四經撥揮, 台北, 施風出版社, 1981, pp. 68-69.
- 6) 王九思 : 難經集注, 台北, 臺灣中華書局, 1986, pp. 160-161.
- 7) 李延是 : 脈決彙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105.
- 8) 李 挺 : 國譯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4, p. 393.
- 9) 張路玉 : 張氏醫通, 新竹, 金藏書局, 1976.
- 10) 滑壽 : 難經本義,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5 : 32.
《難經本義·難經彙考》 “古人之於脈, 其察之固非一道矣; 然今世通行唯寸關尺之法爲最要”
- 11) 徐靈胎 : 徐靈胎醫學全書·難經經釋, 北

問》 《靈樞》에 三部九候診, 人迎寸口診, 寸口診 등의 脈診法이 있다.” 하였고, 《難經》에 “氣口脈診, 三部九候診 陰陽法 輕重法 六十首 및 五十動法” 등의 脈診方法이 있으며, 奇經八脈의 脈診法인 氣口九道脈은 《素問》 《靈樞》 및 《難經》에는 없다.

氣口九道脈은 《脈經·卷十·手檢圖¹²⁾》에 最初로 記載되고 《奇經八脈考¹³⁾》에 脈診部位, 病症 및 脈診方法에 관하여 記述되어 있다. 이에 論者は 氣口九道脈과 氣口脈 六部定位脈診法의 十二經脈 配屬의 差異點, 十二經脈과 奇經八脈의 相關性, 氣口脈에서 奇經八脈의 理致을 담아 脈診하는 緣由에 關하여 研究하여 報告합니다.

II. 資 料

《奇經八脈考·氣口九道脈¹⁴⁾》

(原文) 手檢圖曰; 肺爲五臟華蓋, 上以應天, 解理萬物, 主行正氣, 法五行, 應四時, 知五味, 氣口之

中, 陰陽交會, 中有五部, 前後, 左右, 各有所主, 上下, 中央, 分爲九道診之則知病邪所在也.

(解釋) 手檢圖에 “肺는 五臟의 華蓋가 되는 것으로 위로 天에 相應하며 萬物을 解理하며 精氣의 運行을 主宰하고 五行의 法則에 따르고 四時에 應하여 五味를 알 수 있고, 氣口에서 陰陽이 交會하고, 또 氣口에는 五部가 있어서 前後, 左右에 各各 主宰하는 곳이 있고 上下中央으로 나누어 九道를 形成하니, 이 九道를 診脈하면 病邪가 있는 곳을 알 수 있다.” 하였다.

<原文> 李瀕湖曰; 氣口一脈 分爲九道 總統十二經并奇經八脈. 各出診法 乃岐伯 秘授黃帝之訣也. 扁鵲推之 獨取寸口以決死生. 蓋氣口爲百脈流注朝會之始故也. 三部雖傳 而九道論隱 故奇經八脈 世無人知. 今撰爲圖 并附其說于後 以泄千古之秘藏云.

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7.
12)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 640-666.
13) 王羅珍 :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p. 109-113.
14) 王羅珍 :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p.109-113.

<圖.1> 氣口九道脈¹⁵⁾¹⁶⁾

診左手九道圖 (診右手內外反此)

<p>前如外者足太陽 (左右彈者 陽蹻)</p>	<p>前部中央直者 手太陽 少陰 (丸丸橫于寸 口者任脈)</p>	<p>前如內者足厥陰 (左右彈者 陽蹻)</p>
<p>中如外者足陽明 (左右彈者帶脈)</p>	<p>三部俱牢 中部中央直 手心主</p>	<p>三部俱浮 中如內者足太陰 (左右彈者帶脈)</p>
<p>(從少陽斜至 厥陰者 陰維) 後如外 者足少陽 (左右彈者陰蹻)</p>	<p>三部俱衝 脈 後部中央直者 手陽明 太陰</p>	<p>(從少陰斜至 太陽者 陽維) 後如內 者足少陰 (左右彈者陰蹻)</p>

<解釋> 李時珍은 氣口 一脈을 九道로 나누어서 十二經脈과 奇經八脈을 總統하고 各 部分에서 診脈하는 方法은 岐伯이 黃帝에게 비밀리에 傳授한 要訣인 것이다. 扁鵲이 이를 追究하여 오직 寸口만을 取하여 生死를 진단하였다. 대개 氣口는 모든 經脈이 流走하여 朝會하는 始初가 되기 때문이다. 三部脈法은 비록 傳하여졌으나 九道の 脈法은 숨겨져 있었어 奇經의 脈法을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九道脈을 撰述하고 뒤에 解說을 附記하여 千古의 秘藏을 漏泄하고자 한다.

.....

《身經通考17)》

(原文) 奇經八脈, 其診又別, 直上直下, 浮則爲督; 牢則爲沖; 緊則任脈; 寸左右彈, 陽蹻可別; 尺左右彈, 陰蹻可別; 關左右彈, 帶脈當決; 尺外斜上至寸陽維; 尺內斜上至寸陰維.

15) 福州市人民醫院校釋: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 640-660.
16) 王羅珍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110.
17) 李滌: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p. 171-174.

(解釋) 奇經八脈의 진단에도 또한 구별이 있는데, 直上直下하여 浮한 것은 督脈이고, 牽한 것은 沖脈이고, 緊하면 任脈이고, 左右의 寸脈이 彈하면 陽蹻脈을 결정할 수 있고, 左右의 尺脈이 彈하면 陰蹻脈을 구별할 수 있다. 左右의 關脈이 彈하면 帶脈을 당연히 決할 수 있고, 尺外에서 寸脈까지 기울어진 곳은 陽維脈이고, 尺內에서 寸脈까지는 陰維脈이다.

(原文) 按奇經八脈, 在十二經脈之外, 無臟腑與之配偶, 故曰奇. 夫臟腑之脈, 寸, 關, 尺有定位, 浮, 中, 沈有定體, 弦, 鈎, 毛, 石有定形. 此則另爲一脈, 形狀固異而隧道亦殊; 病證不同, 而診治自別.

(解釋) 奇經八脈은 十二經脈 外에 存在하며 臟腑의 配屬없어 奇한다. 臟腑의 脈은 寸·關·尺의 定位가 있고, 浮·中·沈의 定體가 있으며, 弦·鈎·毛·石의 定形이 있다. 奇經八脈의 脈은 形象이 항상 다르고, 位置도 特殊하고 病症이 同一하지 않아 診斷과 治療도 自然히 區別된다.

(原文) 督脈爲病, 脊強癱瘓. 任脈爲病, 七疝瘕緊. 衝脈爲病, 逆氣裏

急. 帶主帶下, 臍痛精失. 陽維寒熱, 目眩僵仆. 陰維心痛, 胸脇刺筑. 陽蹻爲病, 陰緩陽急 ; 陰蹻爲病, 陽緩陰急 ; 癰瘤瘰癧, 寒熱恍惚. 八脈脈證, 各有所屬,

(解釋) 督脈이 病이 되면 척추가 뺏겨지고 癩癧이 생긴다. 任脈에 病이 생기면 七疝癥堅이 나타난다. 冲脈이 病이 되면 逆氣裏急의 증상이 나타나고, 帶脈은 帶下를 주관하고 臍痛과 失精의 症狀이 나타난다. 陽維脈은 寒熱이 나타나고, 目眩僵仆하게 되고, 陰維脈이 病이 되면 心痛, 胸脇에 刺痛이 생긴다. 陽蹻脈에 病이 들면 陰은 緩해지고 陽은 急해지며; 陰蹻脈에 病이 되면 陽은 緩해지고 陰은 急해진다. 八脈의 脈證은 各各 所屬된 바가 있다

1. 任脈의 脈診

(原文) 前部橫于寸口①丸丸②者任脈也. 動苦少腹痛 逆氣搶心 胸拘急不得俯仰. 《脈經》云 寸口脈緊細實長 下至關者 任脈也.

動苦少腹繞臍痛 男子七疝 女子瘕聚③.

(註釋) ① 前部橫于寸口 : 李¹⁸⁾는 “寸口를 寸, 關, 尺의 三部를 統稱한다” 하였고, 何¹⁹⁾는 “橫을 連橫로 보아 寸部の 浮(外), 中(中), 沈(內)의 三部를 指稱하며 《脈經》의 手檢圖의 內容과 差異가 있다” 하였고, 李²⁰⁾, 李²¹⁾는 “任脈, 衝脈, 督脈은 一源三岐하므로 直上直下 즉 寸, 關, 尺部の 三部에 長透의 意味가 있다” 하였다. 그리고 沈²²⁾은 “任脈의 脈診部位를 寸部로 認識하여 圖(○○○)로 說明하였다.

② 丸丸 : 李²³⁾는 “緊脈으로 勢欽束의 陰象이다” 하였고, 李²⁴⁾는 “動하는 모양이며 緊細實長은 寒邪가 盛하고 實한 상태이다” 하였고, 특히 何²⁵⁾는 “寸口脈이 浮中沈의 三部에서 脈象이 團結滑動하는 形象이다” 하였다.

18) 李中梓 :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 67-68.
19) 何夢瑤 : 醫碭,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508.
20) 李滌 :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p. 171-174.
21) 李延是 : 脈決彙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 105-111.
22) 沈金鑿 :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8-9.
23) 李滌 :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p. 171-174.
24) 李中梓 :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 67-68.
25) 何夢瑤 : 醫碭,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508.

③ 動苦少腹繞臍痛 男子七疝 女子瘦聚 : 沈²⁶⁾은 “任脈은 腎下胞中에서 起하여 身前の 腹部로 循行하여 陰脈을 承任한다” 하였고, 李²⁷⁾는 “小腹과 臍部位의 痛症과 陰中切痛의 症狀이 있다” 하였고, 李²⁸⁾는 “任脈은 陰脈이 모이는 곳(陰脈之海)으로 七疝症은 前陰과 小腹間에서 發病하며 비록 他經의 部位라도 任脈에 根源을 두지 않는 것이 없으며 대부분 血凝經滯로서 女子의 病이 많고 간혹 下에서 上으로 上衝하는 痛症이 있다.” 하였다.

(解釋) 寸口の 寸部の 浮(外), 中(中), 沈(內)에서 橫으로 丸丸 즉 動하는 形象의 脈이 任脈의 脈象이며, 이러한 脈이 搏動하면 少腹痛, 少腹에서 氣가 逆上하여 心部를 攣는 症과 胸部가 拘急하여 屈伸할 수 없어 괴로워 한다. 《脈經》에서는 “寸口脈의 緊細實長한 脈象이 關部에 이르면 任脈의 脈象이며 이러한 脈象이 搏動하면 少腹과 臍部圍의 痛症으로 괴로워 한다. 男子는 七疝이 發病하고, 女子는 瘦聚가 發病한다.” 하였다.

2. 督脈의 脈診

(原文) 三部俱浮① 直上直下者

- 26) 沈金鑿 :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8-9.
 27) 李中梓 :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 67-68.
 28) 李滌 :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p. 171-174.

② 督脈也. 動苦腰脊強痛 不得俯仰 大人癩小兒癩③.

(註釋) ① 三部俱浮 : 李²⁹⁾는 “任脈, 衝脈, 督脈은 一源三岐하며 三脈은 直上直下 즉 寸, 關, 尺部の 三部에 長透의 意味가 있다” 하여 寸口脈의 寸, 關, 尺部가 모두 浮脈이 나타나는 것으로 說明하였고, 沈³⁰⁾은 圖(○○○)로 說明하였다.

② 直上直下 : 何³¹⁾는 “直은 不斜하는 것을 意味하며, 즉 寸, 關, 尺部에 浮中沈을 同一한 힘으로 按脈하는 것을 이른다” 하였다.

③ 動苦腰脊強痛 不得俯仰 大人癩小兒癩 : 沈³²⁾은 “督脈은 腎下胞中에서 起하여 身後的 背部로 循行하여 陽脈의 總督으로 陽脈의 海가 된다” 하였고, 李³³⁾는 “督脈은 太陽經과 合行하므로 邪가 머무르면 脊強하고 貫脊하며, 督脈과 太陽經은 表를 主하며 督脈은 諸陽의 總督, 太陽經은 諸陽의 長(首)가 되어 風邪類에 傷陽하여 表가 먼저 邪를 받아 머무르면 癩癩이

- 29) 李滌 :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p. 171-174.
 30) 沈金鑿 :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8-9.
 31) 何夢瑤 : 醫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508.
 32) 沈金鑿 :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8-9.
 33) 李滌 :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p. 171-174.

된다하였고, 간혹 아래에서 위로 上衝하는 痛症이 있다” 하였다

(解釋) 寸, 關, 尺 三部가 모두 浮하면서 直上直下하면 督脈의 脈象이니, 이러한 脈象이 搏動하면 腰脊强痛으로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없고, 大人은 癩證이 발생하고 小兒는 癩證이 발생하였다.

3. 衝脈의 脈診

(原文) 三部俱牢① 直上直下者 衝脈也. 動苦胸中有寒症. 《脈經》曰 脈來中央堅實 徑至關者 衝脈也. 動苦少腹痛 上搶心有 瘕疝 遺溺 女子絕孕②.

(註釋) ① 三部俱牢 : 李³⁴⁾는 “衝脈은 十二經의 上, 下, 內, 外의 要衝으로 五臟六腑의 海가 되어 五臟六腑가 모두 稟賦하므로 直上, 直下의 寸, 關, 尺部의 三部가 모두 沈實하다” 하였고, 何³⁵⁾는 “衝脈은 血海로서 陰實하여 沈實한 脈象이다.” 하였다. 沈³⁶⁾은

34) 李滌 :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p. 171-174.

35) 何夢瑤 : 醫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 508.

《脈經》曰 脈來中央堅實 徑至關의 寸, 關部까지로 解釋하여 圖(○○○)를 남겼다.

② 動苦少腹痛 上搶心 有瘕疝 遺溺 女子絕孕 : 沈³⁷⁾은 “衝脈은 腎下胞中에서 起하여 臍를 끼고 直衝上行하므로 諸脈의 要衝이 되므로 十二經의 海가 되며 또 先天精血을 運用하여 위로는 諸陽을 灌注하고 아래로는 諸陰으로 스며들어 足跗에 까지 이르므로 血海라 하며 病症은 대부분 氣逆하고 裏急한 症狀이다” 하였고, 李³⁸⁾는 “衝脈은 臍에서 胸에 까지 이르고, 陽明經과 더불어 前으로 竝行하고, 少陰과 더불어 後로 竝行하며, 少陰과 陽明을 모두 得하므로 “臟腑의 海”라 한다. 그 氣가 不順하고 血이 不和하여 胸腹의 氣가 壅逆하고 裏急한다.” 하였다.

(解釋) 寸, 關, 尺 三部가 모두 牢하면서 直上直下하면 衝脈의 脈象이며 이러한 脈象이 搏動하면 胸中에 寒症이 있는 것이다. 《脈經》에서는 “中央에 脈이 堅實하게 搏動하면서 곧바로 關部에 이르면 衝脈의 脈象이며 이러한 脈象이 搏動하면 少腹에서 心部

36) 沈金鑿 :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 8-9.

37) 沈金鑿 :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 8-9.

38) 沈金鑿 :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 8-9.

로 지르면서 아프며, 寒疝과 遺溺症이 發生하며, 女子는 不妊이 된다.” 하였다.

4. 陽蹻脈의 脈診

(原文) 前部左右彈者 陽蹻也①.

動苦腰背痛 癩癩 僵仆 羊鳴 偏

枯 頑痺 身體強②.

(註釋) ① 前部左右彈者 陽蹻也 : 李39)는 “陽蹻脈은 足太陽經의 別脉으로 跟中에서 起하여 外踝를 上行하여 身의 左右를 循行하여 風池에서 太陽과 合하여 斗에 到達한다. 그러므로 陽을 候하는 寸部에서 按脈한다” 하였고, 左右手의 寸部에 彈石搏手의 形象으로 보았다. 何40)는 “左右는 兩手, 彈은 弦緊彈指이다” 하였고, 李41)는 “陽蹻는 陽絡을 主하므로 寸部에서 按脈하고 彈은 緊脉之象이다” 하였고, 沈42)은 “兩蹻는 一身의 左右의 陽을 診脈한다” 하여 圖(○○○)로 설명하였다.

② 動苦腰背痛 癩癩 僵仆 羊鳴 偏枯 頑痺 身體強 : 沈43)은 “陽蹻는 足太陽의 別脉으로 身의 左右으로 上行하고 機關의 蹻捷作用을 하며, 肌肉의 上에 있으며 陽脈을 運行하여 六腑와 通貫하고 모든 表部를 主持하므로 病症 또한 表病裏和한다” 하였고, 李44)는 “二蹻脈은 一源에서 같이 發하고 一經은 經 一經은 絡이 되며 病이 經에 있으면 經急絡緩하고 病이 絡에 있으면 經緩絡急한다” 하여 緩急症은 病邪의 所在로 認識하였다. 李45)는 “邪가 陽維脈, 陽蹻脈에 있으면 陽症에 屬하는 癩症이 發病한다” 하였다.

(解釋) 前部에서 左右로 彈手하면 陽蹻脈의 脈象이다. 이러한 脈이 搏動하면 腰背痛으로 괴로워하며, 癩癩으로 僵仆羊鳴하는 症과 偏枯로 頑痺身體強하는 症이 發生한다.

5. 陰蹻脈의 脈診

(原文) 後部左右彈者 陰蹻也①.

動苦癩癩 寒熱 皮部強痺 少腹痛

里急 腰跨相連痛 男子陰疝 女子

39) 李濬 :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p. 171-174.
40) 何夢瑤 : 醫碭,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508.
41) 李中梓 :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 67-68.
42) 沈金鑿 :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8-9.

43) 沈金鑿 :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8-9.
44) 李濬 :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p. 171-174.
45) 李中梓 :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 67-68.

漏下不止.

(註釋) ① 後部左右彈者 陰蹻也 : 李46)는 “陰蹻脈은 足少陰經의 別脉으로 跟中에서 起하여 內踝를 上行하여 咽喉에 이르러 衝脈과 交貫하며 陰蹻는 少陰과 合하여 頭에는 不至한다. 그러므로 陰을 候하는 尺部에서 按脈한다” 하였고 脈象은 左右手의 尺部에 彈石搏手의 形象으로 인식하였다. 何47)는 “左右는 兩手, 彈은 弦緊彈指이다” 하였고, 李48)는 “陰蹻는 陰絡을 主하므로 尺部에서 按脈하고 彈은 緊脉之象이다” 하였고, 沈49)은 “陰蹻는 一身의 左右의 陰을 診脈한다” 하여 圖(○○○)로 설명하였다.

② 動苦癩癩 寒熱 皮部強痺 少腹痛 里急 腰跨相連痛 男子陰疝 女子漏下不止 : 沈50)은 “陰蹻는 足少陰의 別脉으로 身의 左右으로 上行하고 機關의 蹻捷作用을 하며 肌肉의 下에 있으며 陰脈을 運行하여 五臟을 通貫하고 身體의 裏部를 主持하며 病症 또한 裏病表和한다” 하였고, 李51)는 “二蹻脈은 一

源에서 같이 發하고 一經은 經이 되고 一經은 絡이 되며, 病이 經에 있으면 經急絡緩하고 病이 絡에 있으면 經緩絡急한다” 하였고 緩急症은 病邪의 所在를 認識하였고,, 李52)는 “邪가 陰維脈, 陰蹻脈에 있으면 陰症에 屬하는 癩症이 發病한다” 하였다.

(解釋) 後部에서 左右로 彈手하면 陰蹻脈의 脈象이다. 이러한 脈이 搏動하면 癩癩寒熱, 皮膚強痺, 少腹痛里急, 腰跨相連痛으로 괴로워하고, 男子는 陰疝이, 女子는 漏下不止가 發生한다.

6. 帶脈의 脈診

(原文) 中部左右彈者 帶脈也①.

動苦少腹痛引命門 女子月事不來 絕繼復下 令人無子 男子少腹拘急 或失精也②.

(註釋) ① 中部左右彈者 帶脈也 : 李53)는 “帶脈은 一身의 不上, 不下하는 團身一周하여 束帶하는 形象이다” 하였고, 李54)는 “帶脈은 사람의 腰間

46) 李滌 :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p. 171-174.
 47) 何夢瑤 : 醫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 508.
 48) 李中梓 :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 67-68.
 49) 沈金鑿 :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 8-9.
 50) 沈金鑿 :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 8-9.
 51) 李滌 :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p. 171-174.

52) 李中梓 :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 67-68.
 53) 李滌 :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p. 171-174.
 54) 李中梓 :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 67-68.

에 있다” 하였고, 沈⁵⁵⁾은 “帶脈은 모든 脈의 約束을 살필 수 있는 左右手의 關部에서 彈搏한 緊, 弦緊彈指한 脈을 候할 수 있다” 하여 圖(○○○)로 설명하였다.

② 動苦少腹痛引命門 女子月事不來 絕繼復下 令人無子 男子少腹拘急 或失精也 : 李⁵⁶⁾는 “帶脈은 季肋下에서 起하여 一身을 團身하는 허리 띠와 같으므로 臟腑十二經絡은 모두 帶脈을 지나간다. 그러므로 飲食不絶, 勞欲從傷하여 濕熱下流, 邪火內鬱, 外或風入, 胞宮邪凝하여 臍腹帶脈이 不任하고 客邪하면 五色的 帶下가 淋漓不止하며 兼하여 腰腹痠痛, 足膝委軟, 頭目暈眩, 經脈參差, 或寒熱往來, 容顏枯瘁한다” 하였고, 沈⁵⁷⁾은 “衝任二脈은 腹脇을 循行하고 臍旁을 끼고 氣街로 傳流하여 帶脈에 屬하며 督脈에 絡하고 衝任督三脈은 同起異行하고 一源三岐하여 帶脈에 三脈은 絡한다. 모든 脈은 上下로 往來하면서 帶脈之間에 遺熱하고 客熱鬱抑하여 白物淫溢하며 男子는 隨洩而下하고 女子는 綿綿而下는 帶下症狀은 濕熱이 過하여 發病한다” 하였고, 李⁵⁸⁾는 《靈樞·經別》에서 足少陰經別의 當十四椎에서 出屬帶脈하며 腎은 藏精을 主管하고 帶脈은 腰膂를

帶固하여 虛하면 不能藏 不能固하여 臍痛精失의 症狀이 나타난다” 하였다.

(解釋) 中部에서 左右로 彈手하면 帶脈의 脈象이다. 이러한 脈이 搏動하면 少腹에서 命門穴 部位로 당기면서 아픈 것으로 괴로워하며, 女子는 月經이 斷絶되었다가 이어서 다시 오고 또 不妊症도 될 수 있으며, 男子는 少腹拘急이나 失精이 발생한다.

7. 陽維脈의 脈診

(原文) 從少陰斜至太陽者 陽維

也①. 動苦癱仆 羊鳴 手足相引

甚者失音不能言 肌肉痺痺②.

(註釋) ① 從少陰斜至太陽者 陽維也 : 《脈經·手檢圖》의 氣口九道脈의 部位를 《奇經八脈考 및 奇經八脈考校注》, 《醫宗必讀》은 寸, 關, 尺의 部位를 水平的 區分 즉 寸, 關, 尺部에서 內, 中, 外로 九等分하여 區分하였고, 《身經通考》, 《雜病源流犀燭》은 《脈經·手檢圖》의 寸, 關, 尺의 部位를 浮, 中, 沈部位으로 區分하여 外, 中, 內의 《難經》의 寸口脈의 三部九候로 解釋하였고, 《醫編》에서는 《脈經·手檢圖》의 意味를 水平的 內外的 意味에로 解釋하였고, 寸, 關, 尺의 部位를 다시 浮, 中, 沈으로 外, 中,

55) 沈金鏊 :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8-9.

56) 李滌 :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p. 171-174.

57) 沈金鏊 :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8-9.

58) 李滌 :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p. 171-174.

內로 解釋하여 (圖.1)로 說明하였다.

李⁵⁹⁾는 “陽維脈은 外踝로 부터 肩으로 出하고 腦에 到達하고 陽은 內部에서 外部로 出하므로 尺部の 足少陰에서 寸部の 足太陽으로 斜診한다” 하였고, 李⁶⁰⁾는 “水平的 區分에서 左手의 尺部の 足少陰에서 寸部 中央의 手太陽에서 斜診한다” 하였고, 何⁶¹⁾는 “足少陰의 尺部の 沈部에서 足太陽의 寸部の 浮部로 按診하며 始沈終浮한다” 하였고, 沈⁶²⁾은 “陽維脈은 一身의 表를 診候하며 寸部는 陽部이고 外(밖 즉 手指指方向)側도 陽部이므로 按脈하는 것을 圖(○○○)로 說明하였고, 한편, 李⁶³⁾, 李⁶⁴⁾는 “氣口九道脈의 六經 診脈部位와는 다른 左手의 足少陰腎經의 部位에서 手太陽小腸經의 部位로 斜診한다” 하였고, 任⁶⁵⁾은 《脉經》과 《醫宗必讀》, 《脉訣彙辨》의 內容을 同一하게 引用하였다.

② 動苦癩仆 羊鳴 手足相引 甚者失音 不能言 肌肉痺痒 : 沈⁶⁶⁾은 “陽維脈은

59) 李滌 :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p. 171-174.
60) 李中梓 :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 67-68.
61) 何夢瑤 : 醫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508.
62) 沈金鏊 :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8-9.
63) 李中梓 :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 67-68.
64) 李延是 : 脉訣彙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06-107.
65) 林之幹 : 四診抉微,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p. 115-119.
66) 沈金鏊 :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

諸陽之會에서 起하여 陽 측 表를 循行하는 衛氣를 維絡하며 陽維가 受邪하면 表部에 病症이 있다” 하였고, 李⁶⁷⁾는 “陽維脈은 一身의 陽을 維絡하므로 頭目 手足 頸項 肩背의 諸陽에 脈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脈이 不營하여 頭目を 維絡하지 못하면 眩暈하고, 頸項 肩背를 維絡하지 못하면 뻣뻣(僵)하게 되고, 手足을 維絡하지 못하면 仆倒한다” 하였다.

(解釋) 少陰部位에서 太陽部位로 斜行하는 것은 陽維脈의 脈象이다. 이러한 脈이 搏動하면 癩仆羊鳴과 手足相引으로 괴로워하고, 甚하면 失音證이 되어 말을 하지 못하고 肌肉이 痺癢하게 된다.

8. 陰維脈의 脈診

(原文) 從少陽斜至厥陰者 陰維

也①. 動苦癩癘 僵仆 羊鳴 失音

肌肉痺痒 汗出惡風②.

(註釋) ① 從少陽斜至厥陰者 陰維也 : 李⁶⁸⁾는 “陰維脈은 內踝로 부터 腹部로 入하여 咽喉에 到達하고, 陰은 外部에 藥出版社, 1994, pp.8-9.
67) 李滌 :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p. 171-174.
68) 李滌 :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p. 171-174.

서 內部로 入하므로 尺部の 足少陽에서 寸部の 足厥陰으로 斜診한다” 하였고, 何⁶⁹⁾는 “足少陽의 尺部の 浮部에서 足厥陰의 寸部の 沈部로 按診하며 始浮從沈한다” 하였고, 沈⁷⁰⁾은 “陰維脈은 一身의 裏를 診候하며 寸部는 陽部位이며 그러나 內(內 즉 手小指方向)側은 陰部位이므로 寸部の 內部로 斜診은 陽에 根本은 있으나 陰으로 歸還하는 것을 意味한다” 하여 圖(○○○)로 說明하였다. 한편, 李⁷¹⁾, 李⁷²⁾는 “氣口九道脈의 六經 診脈部位와는 다른 右手의 手少陽三焦의 部位에서 手厥陰心包絡의 部位로 斜診한다” 하였고, 任⁷³⁾은 《脉經》과 《醫宗必讀》, 《脉訣彙辨》의 內容을 同一하게 引用하였다.

② 動苦癲癩 僵仆 羊鳴 失音 肌肉痺痒 汗出惡風 : 沈⁷⁴⁾은 “陰維脈은 陰이 交叉하는 곳에서 起하여 陰 즉 裏를 循行하는 營氣를 維絡하며 陰維가 受邪하면 裏部에 病症이 있다” 하였고, 李⁷⁵⁾는 “陰維脈은 一身의 陰을 維

絡하므로 胸腹의 모든 陰에 이르지 않는 곳이 없고, 脈이 不營하여 胸脇腹을 維絡하지 못하면 胸腹部에 動築하고 刺痛한다” 하였다.

(解釋) 少陽部位에서 厥陰部位로 斜行하는 것은 陰維脈의 脈象이다. 이러한 脈이 搏動하면 僵仆羊鳴失音하고 肌肉이 痺癢하여 汗出惡風하게 된다.

II. 本 論

1. 《脈經·手檢圖二十一部》의 二十一部

手檢圖二十一部의 內容은 十二經中 三焦經을 除去한 十一脈과 奇經八脈의 八脈 및 陽絡 (來小時大, 暫小暫大), 陰絡 (來大時小, 暫大暫小)의 二絡을 合하여 二十一部를 形成하였다.

手檢圖에는 手足三陰三陽의 相互表裏配合이 雙雙配合의 缺點이 없다. 그러나 手厥陰心包 즉 手心主는 相互配合의 表裏經인 手少陽三焦經만 單獨으로 缺如되어 있다. 그 이유를 手檢圖 形成의 制圖 當時에는 《靈樞·本臟》 “腎合三焦, 膀胱”의 理論에 根據하여 三焦는 腎과 膀胱의 部位에서 病情을 診脈하였다. 그러므로 三焦는 省略하고 缺如되어 二十一의 數가 合理的으로 形成되었다.

手檢圖의 圖中에는 《脈經·手檢圖二十一部》의 內容 中 陽絡, 陰絡의 表

69) 何夢瑤 : 醫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508.
 70) 沈金鑿 :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8-9.
 71) 李中梓 :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 67-68.
 72) 李延是 : 脉訣彙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06-107.
 73) 林之翰 : 四診抉微,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p. 115-119.
 74) 沈金鑿 :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8-9.
 75) 李滌 :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p. 171-174.

示가 缺如되어 있다. 그 理由를 圖에 脈의 位置는 圖中에 表示가 可能하다. 《脈經·手檢圖二十一部》의 原文에는 “前, 後, 中, 外, 內” 등 位置의 範疇에 屬하며, 脈의 力量의 變化는 圖中에 表示가 困難하다. 《脈經》의 陽絡의 來少時大(暫小暫大), 陰絡의 來大時小(暫大暫小)는 脈力變化的 範疇에 屬하는 陽絡, 陰絡은 表示가 困難하여 手檢圖에는 十九部만 表示하였다. 手檢圖에 비록 脈力의 變化를 나타내는 陽絡, 陰絡을 表示가 없어도 “二十一數”에 附合한다.

手檢圖의 “從少陰之太陽者”는 陽維脈의 脈診部位를 나타내고 陽絡의 來少時大(暫小暫大)의 脉象은 人體의 六陽經의 絡脈을 統括하고 六合 中 乾에 該當하는 陽維脈의 脉象으로 생각되며, 何76)는 始沈終浮한다하였다. 手檢圖의 “從少陽之厥陰者”는 陰維脈의 脈診部位의 나타내고 陰絡의 來大時小(暫大暫小)는 人體의 六陰經의 絡脈을 總括하고 六合 中 坤에 該當하는 陰維脈의 脉象으로 생각되며, 何77)는 始浮終沈한다하였다.

2. 氣口九道脈의 部位 및 方法

1) 氣口九道脈의 內中外部의 意味

76) 何夢瑤 : 醫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509.

77) 何夢瑤 : 醫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509.

《脈經·手檢圖》의 氣口九道脈의 部位를 《奇經八脈考 및 奇經八脈考校注》, 《醫宗必讀78)》 및 《脈經校釋79)》은 寸, 關, 尺의 部位를 水平의 區分 즉 寸, 關, 尺部에서 內(向小指之一側), 中, 外(向大指之一側)로 九等分하여 區分하였고, 《身經通考80)》, 《雜病源流犀燭81)》은 《脈經·手檢圖》의 寸, 關, 尺의 部位를 浮, 中, 沈部位으로 區分하여 脉象으로 解釋하였고, 《醫碁82)》에서는 《脈經·手檢圖》의 意味를 寸, 關, 尺의 部位를 浮, 中, 沈으로 外, 中, 內를 圖(그림)와 脉象으로 解釋하고 說明하였다.

論者는 《脈經·手檢圖》의 意味를 寸, 關, 尺部를 다시 浮, 中, 沈을 外, 中, 內의 區分하여 氣口脈을 九道로 區分한 《醫碁》의 解說은 奇經八脈의 學說이 成立된 《難經》의 寸口脈의 寸, 關, 尺部の 浮, 中, 沈의 三部九候이며 脈診의 部位와 方法의 差異로 解釋하는 것이 合理的으로 思料된다

78) 李中梓 :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 67-68.

79) 福州市人民醫院 校釋 :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664.

80) 李滌 :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p. 171-174.

81) 沈金鑿 :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8-9.

82) 何夢瑤 : 醫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508.

《醫碁·氣口九道脈⁸³⁾》



- 甲(寸)外 寸浮候
足太陽
- 乙(關)外 關浮候
足陽明
- 丙(尺)外 尺浮候
足少陽
- 丁(寸)中 寸中候
手少陰·手太陽
- 戊(關)中 關中候
手心主
- 己(尺)中 尺中候
手太陰·手陽明
- 庚(寸)內 寸沈候
足厥陰
- 辛(關)內 關沈候
足太陰
- 壬(尺)內 尺沈候
足少陽

2) 氣口九道脈에서의 陽維脈, 陰維脈의 脈診方法의 差異

陽維脈의 脈診部位를 《脈經·手檢圖》에서는 “從少陰斜至太陽者 陽維也” 하였는데 《奇經八脈考》, 《醫宗必讀》, 《奇經八脈考校注》은 寸, 關, 尺의 部位를 水平的 區分 즉 寸, 關, 尺部에서 內, 中, 外로 九等分하여 區

分하였고, 《身經通考》, 《雜病源流犀燭》은 《脈經·手檢圖》의 寸, 關, 尺의 部位를 浮, 中, 沈部位으로 區分하여 外, 中, 內의 《難經》의 寸口脈의 三部九候로 解釋하여 圖(○○○)로 설명하였고, 《醫碁》에서는 《脈經·手檢圖》의 意味를 垂直的으로 解釋하여 寸, 關, 尺의 部位를 다시 浮, 中, 沈으로 外, 中, 內를 解釋하였다.

그리고, 《身經通考⁸⁴⁾》에서는 陽維脈은 外踝로 부터 肩으로 出하고 腦에

83) 何夢瑤 : 醫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508.

84) 李滌 :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p. 171-174.

到達하고 陽은 內部에서 外部로 出하므로 尺部の 足少陰에서 寸部の 足太陽으로 斜診한다하였고, 《醫碁⁸⁵⁾》에서는 足少陰의 尺部の 沈部에서 足太陽의 寸部の 浮部로 按診한다하였고, 《雜病源流犀燭⁸⁶⁾》에서는 陽維脈은 一身의 表를 候하며, 寸部에서 陽部이고, 外側(手拇指方向)도 陽部이므로 按脈하는 것을 圖(○○○)로 說明하였다.

한편, 《醫宗必讀⁸⁷⁾》, 《脉訣彙辨⁸⁸⁾》에서는 氣口九道脈의 六經 診脈部位와는 다른 左手의 足少陰腎經의 部位에서 手太陽小腸經의 部位로 斜診한다하였고, 任⁸⁹⁾은 《脉經》과 《醫宗必讀》, 《脉訣彙辨》의 內容을 同一하게 引用하였다.

陰維脈의 脈診部位를 《脈經·手檢圖》에서는 “從少陽斜至厥陰者 陰維也”하였는데 《身經通考⁹⁰⁾》李는 陰維脈은 內踝로 부터 腹部로 入하여 咽喉에 到達하고, 陰은 外部에서 內部로 入하므로 尺部の 足少陽에서 寸部の 足厥陰으로 斜診한다하였고, 《醫碁⁹¹⁾》에서는 足少陽의 尺部の 浮部에서 足厥

陰의 寸部の 沈部로 按診한다하였고, 《雜病源流犀燭⁹²⁾》에서는 陰維脈은 一身의 裏를 候하며, 寸部는 陽部位이며 그러나 內側(手小指方向)은 陰部位이므로 寸部の 內部로의 斜診은 陽에 根本은 있으나 陰으로 歸還하는 것을 意味한다하여 圖(○○○)로 說明하였고, 한편, 李⁹³⁾, 李⁹⁴⁾는 氣口九道脈의 六經 診脈部位와는 다른 右手의 手少陽三焦의 部位에서 手厥陰心包絡의 部位로 斜診한다하였고, 任⁹⁵⁾은 《脉經》과 《醫宗必讀》, 《脉訣彙辨》의 內容을 同一하게 引用하였다.

以上을 보면, 氣口九道脈에서의 陰·陽維脈의 脈診方法을 醫家들은 三方法을 提示하였다. 一; 《奇經八脈考》, 《奇經八脈考校注》에서는 氣口九道脈의 內 中 外를 水平的으로 區分하여 手大指方向은 外, 手小指方向을 內로 解釋하여 尺內的 足少陰에서 寸外的 足太陽으로 斜診하는 陽維脈, 尺外的 足少陽에서 寸內的 足厥陰으로 斜診하는 陰維脈의 方法을 제시하였다. 이는 《脉經》以後 最初로 氣口九道脈을 提示하였다는 意味가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二; 《身經通考》, 《雜病源流犀燭》, 《醫碁》에서는 氣口九道脈의 內 中 外를 垂直的으로 區分하여 內는 浮 中 沈의 沈部, 外는 浮部로 解釋하

85) 何夢瑤 : 醫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508.
86) 沈金鑿 :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8-9.
87) 李中梓 :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 67-68.
88) 李延是 : 脉訣彙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06-107.
89) 林之辭 : 四診抉微,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p. 115-119.
90) 李濬 :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p. 171-174.
91) 何夢瑤 : 醫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508.

92) 沈金鑿 :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8-9.
93) 李中梓 :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 67-68.
94) 李延是 : 脉訣彙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06-107.
95) 林之辭 : 四診抉微,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p. 115-119.

여 尺部 沈部の 足少陰에서 寸部 浮部の 足太陽으로 斜診하는 陽維脈, 尺部 浮部の 足少陽에서 寸部 沈部の 足厥陰으로 斜診하는 陰維脈의 脈診法을 提示하였다. 이는 《難經》의 寸關尺部の 浮中沈의 三部九候⁹⁶⁾의 影響으로 思料되며 部位는 同一하고 經脈의 配屬 및 按脈의 方法은 差異가 있다. 三 : 《醫宗必讀》, 《脉訣彙辨》에서는 氣口九道脈의 六經 診脈部位와는 다른 左手의 足少陰腎經의 部位에서 手太陽小腸經의 部位로 斜診은 陽維脈, 右手의 手少陽三焦의 部位에서 手厥陰心包絡의 部位로 斜診은 陰維脈의 脈診法을 提示하였다. 이는 《素問·脉要精微論⁹⁷⁾》의 寸口分配臟腑의 影響으로 생각되며, 《四診抉微⁹⁸⁾》에서는 臆中은 手心主로 보았고, 《脉經·卷二·平人迎神門氣口前後脉第二⁹⁹⁾》에서는 左寸部를 心臟 및 手厥陰經이라 하였고, 張景岳¹⁰⁰⁾은 右寸部를 臆中으로 定位하였다.

3. 《手檢圖》의 氣口九道脈과

96) 林之翰 : 四診抉微,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p.85-86.

97) 劉冠軍 : 脈診, 台北, 啓業書局, 中華民國78年, pp.26-27.

“右寸 外以候肺, 內以候胸中, 左寸以候心, 內以候臆中”

98) 林之翰 : 四診抉微,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p. 86-88.

“六腑臟腑分屬定位”

99) 福州市人民醫院 : 脉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54-55.

100) 劉冠軍 : 脈診, 台北, 啓業書局, 中華民國74年, pp. 26-27.

寸口脈의 臟腑配屬의 差異.

1) 氣口九道脈과 氣口脈의 脈診部位의 臟腑配屬의 差異

《手檢圖》의 前, 中, 後, 外, 內部の 各 部分의 手足三陰三陽의 分配는 《內經》 所在의 氣口脈의 臟腑配屬 및 여러 醫家들의 流轉資料와도 差異가 있다. 《內經》에서는 左寸에서는 “外以候心, 內以候臆中”, 右寸에서는 “外以候肺, 內以候胸中” 하였다. 그러나 《手檢圖》에는 左右의 區分이 없고, 寸部에서는 “外以候足太陽, 內以候足厥陰, 內外中間, 以候手少陰與手太陽” 하였다.

《內經》에서는 左關에서는 “外以候肝, 內以候鬲”, 右關에서는 “外以候胃, 內以候脾” 하였고, 《手檢圖》에서는 左右의 區分이 없고, 關部에서는 “外以候足陽明, 內以候足太陰, 內外中間以候手心主” 하였고, 《內經》에서 尺部는 “外以候腎, 裏以候腹” 하였고, 手檢圖에서 尺部 “外以候足少陽, 內以候足少陰, 內外中間以候手太陰與手陽明” 하였다.

以上을 보면 《內經》에서의 “內, 外”의 문제는 各家의 注解는 不同하며, 《內經》 所載의 脈의 內, 外와 《脈經·卷十》 所載의 “內, 外”의 含意는 一致하지 않는다. 비단 《內經》과 《脈經》의 氣口各部의 臟腑配屬의

所載도 差異가 많고, 後世 各 名家의 左右의 寸, 關, 尺三部의 心, 肝, 腎, 肺, 脾, 命門 …… 과 手檢圖의 所載의 臟腑分配配屬도 다르다.

2) 《靈樞·經脈》과 《手檢圖》

의 三陰三陽의 病症의 差異

手檢圖의 三陰三陽의 病症은 《靈樞·經脈》의 內容과 同一하지 않다. 예로 足陽明經病을 보면, 《手檢圖》의 “動苦頭痛, 面積熱, 大便不利, 腸鳴, 不能食, 足脛痺, ……” 등이 轉載되어 있고, 그리고 《靈樞·經脈篇》 “

…… 是動則病 洒洒振寒, 善呻數欠, 顏黑. 病至則惡人與火, 聞木音則惕然而驚, 心欲動, 獨閉戶塞牖而處. 甚則欲上高而歌, 棄衣而走, 賁響腹脹 ……” 등이 記載되어 있다.

《手檢圖》와 《靈樞·經脈》을 相互 比較하면 相當한 差異가 있으며, 其他의 各 經을 比較하여도 많은 差異가 있다.

IV. 考 察

馬王堆의 出土 醫書에서 《內經》의 祖本에 해당하는 《足臂》 《陰陽》의 두 灸經과 《脉法》 《陰陽脈死候》는

經脈名	《脉經·手檢圖》	《靈樞·經脈》
足陽明經	<p>中部如外者, 足陽明胃也.</p> <p>動苦頭痛, 面積熱, 大便不利, 腸鳴, 不能食, 足脛痺,</p>	<p>胃足陽明之脉 ……</p> <p>是動則病 洒洒振寒, 善呻數欠, 顏黑. 病至則惡人與火, 聞木音則惕然而驚, 心欲動, 獨閉戶塞牖而處. 甚則欲上高而歌, 棄衣而走, 賁響腹脹.</p> <p>是主血所生病者, 狂, 虐, 溫飲 汗出, 衄衄, 口喎唇眦, 頸腫喉痺, 大腹水腫, 膝臑腫痛, 循膺, 乳, 氣街, 股, 伏兔, 髀外廉, 足跗上皆痛, 中趾不用.</p>
脈診方法	氣口九道脈	人迎氣口脈診

表.1. 《脉經·手檢圖》와 《靈樞·經脈》의 足陽明經의 病證 比較

經脈에 관한 古代 經脈學說의 醫論의 形成과 發達過程에 關하여 많은 疑惑을 解消할 수 있었다. 그러나 奇經八脈에 關한 《內經》과 《難經》 以前의 古代 醫籍에 對한 資料는 未備하다.

《史記·扁鵲傳》에는 扁鵲이 B.C 5 C 頃에 스승 長桑君에게 一群의 禁方書를 傳受한 記錄과 《史記·倉公傳》에 倉公이 B.C 2 C 頃에 陽慶에게 《黃帝扁鵲之脈書》 《上下經》 《五色診》 《奇咳術》 《揆度》 《陰陽外變》 《藥論》 《石神》 및 《接陰陽禁書》 등의 10 種의 醫學書籍을 받아 古代의 醫學을 繼承한 記錄이 있다¹⁰¹⁾.

한편 余¹⁰²⁾는 《史記·倉公傳》 “齊北王 …… 臣意教以 經脈高下及奇絡法 當論愈所居及氣當上下出入邪(正)逆順 以宜鑱針 砭灸處 ……” 에서 <經脈高下>는 手足經脈의 走向을 가리키고, 奇絡法이 奇經八脈의 雛形과 類似하고, 愈는 穴位의 名稱으로 推論하였고, 清代의 《素問校勘記》 “奇恒 謂異於常也. 疑 《素問·奇病論》 즉 《奇恒》 書之僅存者. 《史記》 述倉公所受書, 有《奇咳術》 疑 《奇咳》 卽 《奇恒》” 하여 古代醫書 중에서 《奇咳》가 《奇恒》 일 것이라는 假說을 提起하였다¹⁰³⁾.

그리고, 龍¹⁰⁴⁾은 “《素問·玉版論要篇》에 《揆度》 《奇恒》의 書名이 있고, 《素問·病能論》에도 《奇恒》이 있다. ‘…… 《說文解字》에 ‘咳’는 ‘孩’라 하였고, “奇孩, 非常也” ……

《奇咳術》은 非常한 病을 治療하는 醫術이며, 《素問·大奇論》에 《奇咳術》의 內容이 保存되어 있을 可能性이 있다” 하였고, 余¹⁰⁵⁾는 “《奇咳術》이 《奇恒》이며, 《素問》의 <疏五過論> <病能論> <方盛衰論> <玉版論要>에는 《奇咳》의 書名과 內容의 片鱗을 볼 수 있으며, 《史記·倉公傳》 “其脈法 《奇咳》言曰: ‘臟氣相反者死’ 切之 得腎反肺 法曰: ‘三歲死’也” 의 記述을 보면 《奇恒》은 診脈으로 死生을 決斷하는 古代醫學文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였고, 沈¹⁰⁶⁾은 “《難經》과 《奇經八脈考》의 奇經八脈의 醫論을 古代에 陽慶이 倉公에게 傳受한 《奇咳術》이다 하였고, 또 醫家들은 …… 奇經八脈에 對한 醫論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였다.

龍¹⁰⁷⁾은 “古代에 書名에 黃帝의 名稱이 사용된 것은 B.C 2 세기의 西漢初期이고 B.C 1세기末의 西漢末期에 이르러 《黃帝》의 名稱이 書名으로 普遍化되었다.” 하였고, 曹¹⁰⁸⁾는 “醫學

101) 龍伯堅 : 黃帝內經概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6, pp.1-6, 80-85.

102) 余自漢. 內經靈素考.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122-128.

103) 余自漢. 內經靈素考.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122-128.

104) 龍伯堅 : 黃帝內經概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6, pp.1-6, 80-85.

105) 余自漢. 內經靈素考.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122-128.

106) 沈時譽 : 醫衡,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5, p. 卷一 10

107) 龍伯堅 : 黃帝內經概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6, pp.1-6, 80-85.

108) 曹東義 : 神醫扁鵲之謎, 北京, 中國中

의 起源은 前代의 醫學經驗을 繼承한 扁鵲부터 始作되어 倉公 以後에 여러 分派가 생겼다” 하였고, 何¹⁰⁹⁾는 “《難經》은 倉公의 醫學을 繼承한 西漢의 醫家의 著作이다” 하였다. 奇經八脈은 《難經》에서 整體의으로 立論되어 현재까지 遵用되고 있다.

奇經八脈의 意義에 關하여 李¹¹⁰⁾는 “奇經八脈은 陰陽의 昇降을 總括하여 管掌하고 陽維脈는 上, 陰維脈는 下, 陽蹻脈은 東, 陰蹻脈은 西, 督脈은 南, 衝脈은 中, 任脈은 北, 帶脈은 總束하는 上下四方의 六合의 空間的인 意味와 機能的인 意味가 있다” 하였고, 李¹¹¹⁾는 “十二經脈의 總持하고 病機를 探求하여 고기를 잡는 그물의 役割을 하는 重要的 意義가 있다” 하였다.

《內經》에서는 任脈, 督脈, 衝脈, 陰蹻脈, 陽蹻脈등이 散發的으로 記述되어 있고¹¹²⁾. 《素問·骨空論》에서는 奇經八脈의 病症과 路線이 있고 陰陽維脈에 關한 內容의 記載는 없다. 그리고 《難經·二十七難》의 奇經八脈의 作用과 名稱, 《難經·二十八難》의 循行 및 《難經·二十九難》의 病候등이 記載되어 奇經八脈은 體系化되고 整形化되었다¹¹³⁾. 그러나 《難經》

醫藥出版社, 1996, pp. 168-182.

109) 何愛華, 難經解難校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295-307.

110) 王羅珍: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p. 4-5.

111) 李延是: 脈決彙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 105.

112) 王琦 外: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서울, 1983, p. 258.

113) 葉燾: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 46-54.

의 <一難>에서 <二十二難>까지의 脈學篇에는 奇經八脈의 脈診法에 關한 論술은 없다.

奇經八脈의 氣口九道脈에 對하여 李¹¹⁴⁾는 “奇經八脈의 病은 독립적으로 發病하지 않고 經과 絡의 病이 流入되어 溢出한다.” 하였고, 張¹¹⁵⁾은 “奇經八脈의 病은 傳經이나 流注에 依한 傳變이 없고 忽然히 發病하고 忽然히 潛伏한다.” 하였고, 李¹¹⁶⁾는 “氣口九道脈의 脈象은 病이 있으면 나타나고 病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다.” 하였고, 沈¹¹⁷⁾은 “奇經八脈에 關한 病은 《奇經八脈考》의 氣口九道脈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다” 하였다.

그러나 氣口九道脈은 奇經學說의 形成段階인 《素問》 《靈樞》 혹 成立段階인 《難經》에서 볼 수 없고, 《脈經·卷十·手檢圖二十一部》에 最初로 記載되어 있고, 明代 《奇經八脈考》에서는 《脈經》의 內容과 若干의 增減되어 記載되어 있고, 以後에 《醫宗必讀》, 《脈決彙辨》 등에 收錄되어 있고, 清代 《身經通考》, 《脉如》, 《醫編》, 《雜病源流犀燭》 및 《四診抉微》 등에서 獨創的으로 解釋하였다.

그리고 李¹¹⁸⁾는 “臟腑의 脈은 寸·

114) 李 挺: 國譯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4, p. 393.

115) 張路玉: 張氏醫通, 新竹, 金藏書局, 1976.

116) 李 灏: 身經通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172.

117) 沈時譽: 醫衡,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5, p. 卷一 10

118) 李延是: 脈決彙辨, 上海, 上海科學技

關·尺의 一定한 位置가 있고, 浮·中·沈의 一定한 體가 있으며, 弦·鉤·毛·石의 一定한 形態가 있다. 奇經八脈은 臟腑와 配屬되는 일이 없고 十二經脈의 外에 存在하여 十二經脈을 總持한다” 하였고, 李¹¹⁹⁾는 “氣口九道脈은 形象이 항상 다르고 位置도 특수하고 病症이 같지 않으며 診斷과 治療도 自然히 區別되며 奇經에 病이 있으면 나타나고 病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으며 邪氣가 있는 實한 形象으로 나타난다” 하여 十二正經의 氣口脈診과 奇經八脈의 氣口九道脈의 差異點에 關하여 說明하였다. 그리고 黃¹²⁰⁾은 “氣口九道脈 또한 手太陰肺經에서 按診하며, 臟腑의 脈을 按診하여 診斷할 수 있으면 氣口九道脈은 洞察할 수 있다.” 하였다.

氣口九道脈에 關하여 《脈經·卷十·手檢圖二十一部》와 《奇經八脈考》의 記錄은 《難經·十八難》 寸關尺의 十二經脈 配屬과는 다르고, 또 《脈經·卷十·手檢圖二十一部》에 있는 十二經脈의 病候와 《素問》 《靈樞》의 經脈病症과 差異가 있다. 어떠한 理致에 緣由에 依한 것인지에 關한 書誌學的인 根據 및 經絡學的인 研究方案에 關하여 向後 繼續的인 窮究가 있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그리고 氣口九道脈의 十二經脈 및 奇經八脈의 配屬方法은 氣口脈에 《素

問·三部九候論》 上中下の 天人地の 三部九候診의 配屬方法을 援用하고 《難經·十八難》 氣口脈의 三部九候에 六部定位脈診과는 다른 手指運用의 按診法을 運用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論者는 清代 何夢瑤¹²¹⁾의 《醫砭》에서 氣口脈 三部九候診으로 解釋한 方法이 妥當하다고 생각되며, 黃琳¹²²⁾의 《脈確》에서 《難經·十八難》 六部定位脈法으로 奇經八脈을 診斷하는 方法은 奇經八脈과 臟腑 및 十二經脈의 相互關係에 關하여 正確한 理解에서 運用한다면 妥當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以上을 綜合하여 보면 《針經指南》, 《針灸大全》 및 《針灸大成》 등의 八脈交會穴을 應用한 鍼灸 治療法과 《本草分經》, 《得配本草》 등의 奇經八脈으로 歸經하는 本草 및 奇經八脈의 病症에 《傷寒論》, 《奇經八脈考》, 《臨證指南醫案》 및 《雜病源流犀燭》 등에 記載된 方劑의 遵用에 氣口九道脈을 適用할 수 있다.

IV. 結 論

奇經八脈의 脈診法은 《脈經·卷十·手檢圖》에 最初로 記載되어 있고, 明代의 《奇經八脈考》에 記載되어 있는 氣口九道脈을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術出版社, 1991, p.105.

119) 李濂 :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p. 171-174.

120) 黃琳 : 脈確,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1, p.49.

121) 何夢瑤 : 醫砭,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508.

122) 黃琳 : 脈確,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1, p.49.

1. 氣口九道脈은 奇經八脈에 病이 있으면 나타나고 病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고, 邪氣 있는 實한 形象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素問·三部九候論》의 上中下の 天人地의 三部九候를 《難經·十八難》에 寸關尺의 浮中沈의 氣口脈의 三部九候論으로 收容한 氣口脈의 三部九候診을 運用한 것으로 생각된다.
2. 督脈, 衝脈, 任脈은 一源三岐하므로 寸關尺의 三部에서 診脈하며, 寸關尺의 三部에 浮脈이 나타나면 發揚하는 형상이므로 督脈, 寸關尺의 三部에 緊脈이 나타나면 收斂하는 形象이므로 任脈, 寸關尺의 三部에 牢脈이 나타나면 堅實하며 有餘한 象으로 冲脈에 邪가 있음을 의미한다.
3. 帶脈은 신체의 가운데의 중간에서 전신을 순환하므로 띠를 둘러 맨 것과 같다. 그러므로 彈搏의 脈이 左右의 寸關尺의 關部에서 弦緊彈指하는 脈이 나타난다.
4. 陽蹻脈은 足太陽의 別로서 外踝 위로 순행하고 風池로 들어가 太陽과 合해져 頭에 이르므로 陽의 徵候를 나타내는 寸部의 左右가 弦緊彈指한다., 陰蹻脈은 足少陰의 別로서 內踝에서 上行하고 咽喉에 이르러 衝脈과 만나며 頭에는 不至하여 陰의 徵候를 나타내는 尺의 左右가 弦緊彈指한다.

5. 陰陽維脈은 아래에서 起始하고, 陽은 外踝에서부터 어깨에 出하고 腦에 이르며, 陰은 內踝에서부터 腹으로 들어가고 咽喉에 이르는 理致이다. 그러므로 陽維脈은 尺(沈)內部에서 寸(浮)外部로 斜診하며 始沈終浮하는 脈象이 나타나고, 陰維脈은 尺(浮)外部에서 寸(沈)內部로 斜診하며 始浮終沈의 脈象이 나타난다. 그리고 《脈經》에서는 陽絡 즉 陽維脈은 來小時大, 暫小暫大한다 하였고, 陰絡 즉 陰維脈은 來大時小, 暫大暫小한다 하였다.

V. 參考文獻

1. 滑白仁 : 十四經撥揮, 台北, 施風出版社, 1981.
2. 王九思 : 難經集注, 台北, 臺灣中華書局, 1986.
3. 任應秋 : 黃帝內經類析,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4. 王羅珍 :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5. 李 樞 : 國譯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4.
6. 張路玉 : 張氏醫通, 新竹, 金藏書局, 1976.
7. 李 濬 : 身經通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8. 河北中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9.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10. 葉霖, 難經本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11. 黃世林, 孫明異, 中醫脈象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12. 何夢瑤 : 醫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13. 李中梓 :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14. 沈金鱉 :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15. 李延是 : 脈決彙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16. 劉冠軍 : 脈診, 台北, 啓業書局, 中華民國78年
17. 黃琳 : 脉確,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1.
18. 曹東義, 神醫扁鵲之謎,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 168-182.
19.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6 : 1-6, 80-85.
20. 沈時譽. 醫衡,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1985 : 卷一 10.
21. 何愛華. 難經解難校釋,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 295-307.
22. 余自漢. 內經靈素考.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122-128.